



최근 산업보건동향

한국산업위생협회
kohma.kr

E-mail kohma@kohma.kr

Tel 02-782-3380

Fax 02-836-3380

[발행일] 2023. 08. 22

정부·국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 후보자 추천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7조에 따라 산재 재심사 청구사건을 심리·재결하는 역할을 수행할 비상임 위원을 불임과 같이 모집합니다.
- 근로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에서는 근로자 업무상 재해의 공정하고 신속한 보상을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유능한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적인 사항은 첨부 파일을 확인해주시고, 문의사항은 044-202-8462(박은실 심사관) 또는 044-202-8475(권동현 심사관)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30801040

50인 미만 휴게시설 의무화, 업종별 협회와 간담회 개최

-업종별 협회 소속 회원사의 제도 준비사항 공유 및 제도 안착방안 논의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8.16.(수) 10시, 6개 주요 업종별 협회와 8.18.부터 시행되는 50인 미만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에 따른 준비상황을 공유하고, 제도의 현장 안착방안을 논의했다.
- 고용노동부는 간담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 시행에 앞서,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 지도점검, 실태조사 및 컨설팅, 유통업체·지자체 등 간담회, 홍보 등 준비상황 등을 소개했고, 제도가 현장에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요청했다.

- 이후 생략 -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539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3-393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4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현행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 중 법으로 상향입법된 내용을 삭제하고 조문번호를 정비하여 법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려는 것임

- 이후 생략 -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info/lawinfo/lawmaking/view.do?bbs_seq=20230800263

안전보건공단, 물류센터 근로자 보호를 위한 폭염 대응상황 현장 점검

- 실내작업장 폭염노출 근로자에게 물·바람·휴식 반드시 확보
- 온열질환 취약 근로자 및 높은 강도업무 종사자 작업전·후 건강상태 확인 강조
-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안중주 이사장, 이하 '공단')은 8월 13일(일) 쿠팡풀필먼트 경기광주센터를 방문하여 물류센터 근로자의 건강보호조치 이행 실태 등 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작업 여건 및 작업장 구조상 폭염에 취약한 물류센터의 냉방·환기장치 가동현황과 실내 작업장의 온열질환예방 3대 수칙 이행실태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 한편, 안전보건공단은 8월 한 달간 폭염 비상대응체제를 운영하여 건설현장, 물류센터 등 폭염 취약사업장에 대한 온열질환예방 3대 수칙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등 온열질환예방을 위해 전사적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이후 생략-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5389

(참고) 이정식고용부 장관, 고열(高熱)사업장 현장점검

- 화상 등 안전사고 및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 당부
- 휴게시설, 외국인고용 등 50인 미만 사업장 현장 애로사항 청취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22일(화,10:30~), 고열작업을 통해 맨홀 뚜껑 등을 생산하는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소재 중소주물제조기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 고열(高熱)작업은 주물제조과정 중 금속을 가열·압연 또는 가공하는 작업으로, 작업자가 상시적으로 매우 높은 온도에 직·간접으로 노출되어 화상은 물론 온열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작업에 해당한다. 특히, 고열작업이 이루어지는 작업장소는 폭염기 외부 열기를 받으면 작업장 온도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고열작업 종사자의 열사병 등 건강예방이 더 중요해진다.
- 이후 생략-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5416

(참고) 고용노동부 장관, 디엘이앤씨 사망사고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지시

- 고용노동부 본부·지방고용노동청 「긴급 합동 수사회의」 개최 -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디엘이앤씨에서 7건의 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여덟 분이 사망하신 데 대해 "다른 건설사에 모범을 보여야 할 대형 건설사에서 반복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 "각 사건별 중대재해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디엘이앤씨의 반복적인 사고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조적 문제로 인한 것인지 등에 대하여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 이에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주재로 8.14.(월) 10:00, 디엘이앤씨 수사 담당 서울·충부·부산지방고용노동청 및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장이 참여하는 「디엘이앤씨 사망사고 관련 긴급 합동 수사회의」를 개최했다.
- 이후 생략-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5392

(참고)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건설현장 패트롤점검

- 무더운 시간대 휴식부여 등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조치 점검
- 소규모 건설현장, 아파트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이행 여부 확인 및 애로사항 청취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21일(월,16시~) 산업안전감독관들과 함께 패트롤카를 타고 강남지역 소규모 건설현장과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패트롤 점검했다. 이날 현장점검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조치(물, 그늘, 휴식) 준수 여부 및 지난 8.18.부터 시행된 50인 미만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 고용노동부는 폭염경보 발령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점검 실시해 무더위 시간대 휴식 부여, 작업시간 변경 등 온열질환 예방조치를 중점 지도할 계획이다.
- 이후 생략-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5413

8.18.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 올해 말까지 특별지도기간 운영, 컨설팅 및 시정을 통해 제도 안착 지원

- 현장의 다양한 의견수렴 등을 통해 휴게시설 제도 합리화도 지속 노력

- 지난해 8.18.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데 이어 오는 8.18.(금)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다. 소정의 기준에 따른 20인 이상 또는 10인 이상 사업장이 적용 대상이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 고용노동부는 이번 적용 확대가 제재규정 등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고려하여 충분한 유예기간(2년)을 두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안을 통해 현장 안착을 지원한 만큼 적용대상 기업의 상당수는 법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 다만, 어려운 경영사정 등으로 아직 휴게시설을 미설치한 기업들을 고려하여 올해 말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제재(과태료 부과)보다는 컨설팅과 시정 중심의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제도 수용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 아울러, 관계기관 협의과정 등에서 제기된 개선필요 사항 등에 대해 현장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방침이다.

• 문 의: 직업건강증진팀 나상명 (044-202-8893)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5395

(참고) 태풍, 집중호우, 냉해 등으로 피해 입은 국민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 - 실업급여, 직업훈련, 산업안전 등 필요한 조치 신속히 지원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대구시 군위군과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등 44개 지역이 태풍, 집중호우, 냉해 등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8.14.)됨에 따라 지역주민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고용 및 생활안정, 안전에서 최우선으로 필요한 조치를 즉각 실시한다고 밝혔다.
- 우선 실업급여 수급자가 태풍 피해 등으로 인해 실업인정일 변경을 원할 경우 별도 증빙자료 없이 변경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취업활동계획 수립 요건도 대면 3회에서 대면·유선 2회로 완화한다. 아울러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훈련생의 경우 출석 인정 요건을 완화하여 훈련에 지속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훈련에 더 이상 참여하기 어려울 경우 중도 탈락으로 인한 불이익을 면제해 준다.
- 저소득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는 자녀학자금 용자 대상을 확대하고 용자 한도도 상향 연 500만원에서 연 700만원까지 확대한다.(생활안정자금 용자)
- 피해 지역 사업장의 재정 부담도 완화한다. 고용·산재보험료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체납처분을 유예한다. 아울러 사업장이 피해로 인해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하면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지원한다. 또한 사업장에서 사고 위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시설·장비 등 개선자금 신청 시 최우선으로 선정 및 지원한다.(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 문 의: 기획재정담당관 김은화(044-202-7028)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5397

내년부터 소규모 건설현장은 모바일 앱 등을 사용해서 퇴직공제 신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8.18.~9.27.)

- 고용노동부는 소규모 건설현장 등에서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신고를 위해 전자카드 단말기(이하 '단말기') 대신 위치정보에 기반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하 '모바일 앱')을 활용해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8월 18일부터 입법예고했다.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퇴직공제부금 신고 누락방지 등을 위해 '20년 11월부터 시행되어 대규모 건설현장부터 단계별로 확대 적용(현재 공공 50억원, 민간 100억원 이상)되었고, '24.1.1.부터는 모든 퇴직공제 가입 대상 건설공사(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에 전면 시행된다.
- 이에 따라 전자카드 사용을 위해서 사업주는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하는데, 고용노동부는 소규모 건설공사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4년부터 공사에정금액 3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 등에서는 단말기 또는 모바일 앱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 김성호 고용정책실장은 "위치정보에 기반한 모바일 앱 서비스가 도입되면 소규모 건설 사업주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제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사업주와 건설근로자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 문 의: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이동훈(044-202-7419)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5402

무료로 쉽게 듣는 '직장 내 갈등'(고용차별, 괴롭힘) 예방 교육

- 노사발전재단, 차별없는일터지원단의 온라인 신규 교육 운영

-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김대환)은 비정규직 고용사업장의 직장 내 갈등 예방을 위한 신규 교육을 8월 16일 오전 10시부터 차별없는일터지원단의 '고용차별예방 온라인 학습실(<https://nosaedu.kacnet.co.kr>)"을 통해서 무료로 제공한다.
- 이번 교육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높은 비중('22년 임금근로자의 37.5%, 통계청)과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의 증가('20년 5,823건, '21년 7,774건, '22년 7,814건, 고용노동부)로 사업장의 교육 수요가 높다는 판단 아래 추진됐다.
- 교육은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고용차별 예방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으로 구성되며, 기존 강의식 방식과는 다르게 강사 2인이 기본개념·사례·예방대책 등을 대담(對談) 형식으로 쉽고 재미있게 강의한다.
- 한편 '고용차별예방 온라인 학습실'에서는 2020년부터 비정규직의 개념, 차별예방 사례, 임금·근로시간 관리, 성희롱 예방, 장애인 인식개선,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 등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900여 개 사업장의 임직원 9,800여 명이 이용하여 높은 관심을 받았고, 올해도 5월부터 7월까지 비정규직 고용사업장의 임직원 1,000여 명이 수료했다.
- 아울러 재단은 누리소통망(인스타그램·페이스북 검색어 '차일단')에서 고용차별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카드뉴스, 웹툰, 인포그래픽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8월 20일까지 참여형 이벤트도 진행한다.
- 재단은 서울, 인천, 대전, 대구, 경남, 전북 등 6개 지역에서 차별없는일터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고용차별 교육이나 상담을 원하는 경우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588-2089로 문의하면 가까운 지역의 차별없는일터지원단으로 연결된다.

• 문 의: 차별개선팀 이혜선(02-6021-1230)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5399

고용노동부 장관, 중대재해 발생 대형 건설사에 엄중 경고

- 주요 대형 건설사와 「건설업 안전보건리더회의」 개최
- 대형 건설사에게 원청으로서의 안전관리 역할 강조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8일(금) 14:00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주요 건설사 대표이사 등이 참석하는 건설업 안전보건리더회의를 진행했다.
- 올해 전반적인 중대재해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50억 이상 건설현장에서는 오히려 증가하는 상황에서, 최근 대기업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이번 회의를 개최했다.
- 지난해부터 중대재해가 없었던 삼성물산, 호반건설, 태영건설이 안전관리 사례를 발표한 후(별첨), '효과적 자기규율 예방체계'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 이정식 장관은 "가장 효과적인 재해예방 방법은 기본을 지키는 것"이라며, "자기규율 예방체계는 구축이 아닌 이행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기본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붕괴사고 등에 대해서는 엄정히 수사하여 책임을 물겠다"라고 밝혔다.
- 이후 생략-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5406

건설현장 위험 기계·장비 표준 작업계획서 배포

- 이동식크레인, 굴착기, 고소작업대, 트럭, 콘크리트펌프카, 향타기 (6종) -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5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서 기계·장비에 의한 사망사고가 증가세인 점을 고려, 사망사고 다수 발생 기계·장비 6종에 대한 「작업계획서 표준안」을 제작하여 배포한다고 밝혔다.
-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5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161건(172명) 중 44%인 71건(74명)이 기계·장비에 의해 발생했으며, 위험요인별로는 ①이동식크레인(15건), ②굴착기(13건), ③고소작업대(13건), ④트럭(5건), ⑤콘크리트펌프카(3건), ⑥향타기(2건)에 의한 사고가 70% 이상이었고, 기계·장비의 이동(부딪힘·끼임), 중량물 인양(맞음), 작업자 탑승(떨어짐), 하역운반(부딪힘·맞음) 중에 사고가 많았다(참고1).
- 사업주는 주요 기계·장비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 재해유형과 안전조치를 담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준수해야 하나(안전보건규칙 제38조), 그동안 표준 양식이 없어 행정·재정적 역량이 부족한 중소·중견 건설사는 어려움을 겪었다.
- 작업계획서 표준안 제작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 밝힌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특별관리'의 후속 조치이다.
- 현장에서 실제 사용되고 있는 작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 ①사고사례 분석결과에 따른 대표 재해유형과 안전조치를 담았으며, ②작업 전에 관리자가 확인해야 하는 작업안전 점검표와 ③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핵심안전수칙을 수록하여 기업들의 안전관리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작했다.
- 문 의: 건설산재예방정책과 박승현(044-202-8940), 산업안전기준과 김영남(044-202-8853)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5403

안전보건공단

주간 사망사고 속보

[7/22, 충북 음성군] 제품 상차 작업 중 떨어짐(4m)
 [8/3, 경북 구미시] 작업 중 지게차에 부딪힘
 [8/4, 충남 논산시] 사다리 작업 중 떨어짐
 [8/7, 부산 부산진구] 비계에서 창호설치 작업 중 떨어짐
 [8/8, 경기 성남시] 기계 사이에서 작업 중 기계가 작동하여 끼임
 [8/8, 경기 포천시] 지게차로 자재 운반 중 넘어지는 자재에 깔림
 [8/8, 울산 울주군] 크레인으로 자재 인양 중 인양물이 회전하여 맞음
 [8/9, 경기 안성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거푸집이 붕괴되어 매몰
 [8/9, 경기 용인시] 옥상(20층) 배수로 점검 작업 중 떨어짐
 [8/11, 부산 연제구] 창호 교체 작업 중 떨어짐(20m)
 [8/11, 충북 충주시] 지게차로 폐기물을 운반하던 중 넘어지는 지게차에 깔림
 [8/11, 경남 의령군] 계란 이송 엘리베이터 하부 청소 중 회전축에 작업복이 말리면서 끼임
 [8/14, 부산 부산진구] H빔 하역 중 H빔과 함께 떨어져 깔림
 [8/14, 경기 평택시] 제품 보관창고로 이동하던 중 진입하던 지게차에 부딪혀 깔림
 [8/14, 서울 강북구] 탑승식 청소차로 지하주차장 청소 중 청소차가 전도되어 기둥 사이에 끼임
 [8/16, 서울 구로구] 고소작업차로 외벽 패널 부착 중 지상으로 떨어짐(18m)